

도 덕 심

— 예의바르고

인정 많은 민족 —

가정에서나 단체에서나 나라에서나 간에 주인으로서 자주의식이 아무리 강해도 도덕심이 부족하면 우리는 편협된 이기주의자일 뿐이다. 아무리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체나 사회의 명예를 지키고 긍지를 가진다고 해도 도덕심이 부족하면 오만과 교만의 소유자가 될 뿐이다. 자주의식은 가졌으나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떳떳할 데라고는 가면을 쓴 자기 자신밖에 없다.

「떳떳한 인간」「떳떳한 국민」이라는 말을 듣거나 참으로 떳떳하다고 느끼려면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뿐만아니라 남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나와 이웃과 남에게 떳떳하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인 행동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간의 양심은 착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 주는 마음 속의 심판관이다. 그것은 누구의 경우이나 어떤 상황 하에서도 결코 편협되게 기울어지는 심판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심」(良心)을 「공심」(公心)이라고도 한다.

옛부터 이웃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가리켜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 왔고, 우리 민족도 그런 호칭에 긍지를 느끼고 그런 민족답게 살려고 노력해 왔다. 비록 현대에 와서 산업사회의 윤리에 적응하는데 우리가 세련성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의와 도덕을 사람됨의 척도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상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마음가짐이다. 물론, 예의가 도덕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예의를 벗어난 행동이 참으로 도덕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우리의 전통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었던 「삼강」(三綱)과 「오륜」(五倫) 등은 오늘의 사회 생활에 그대로 지켜질 수도 없고, 그것만을 지킨다고 해서 오늘의 우리사회가 도덕사회로 되는것도 아니다. 오늘의 산업 사회는 그 자체의 새로운 도덕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의 심층에는 전통사회로부터 지켜오던 도덕규범으로 인하여 형

성된 고유의 인간미가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풍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학을 강의해 온 어느 노교수가 겪은 이야기가 있다.

하와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포 2세가 미국 본토에 유학하여 이 노교수에게 찾아 갔다.

그 교포 학생은 한국말은 물론 한국의 풍속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젊은이었다. 교수가 식사를 하는데 그 옆 의자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고, 흔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것과 같이 온 몸과 두 손을 흔들어 가며 이야기를 걸기도 하였다. 교수는 속으로「버릇없는 놈」이라고 생각도 했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교수는 한 학기 동안 이 젊은이에게 우리의 말과 풍속을 가르쳤다. 방학이 되어 이 학생은 하와이로 돌아가서 조부모, 부모, 이웃의 교포들에게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또 큰 절도 했다. 하기가 서툴기가 이룰데 없었다. 그러나 부모와 이웃의 어른들은 그것만으로도 대견스러워 기쁘기만 했다.

다시 개학이 가까워 와서 하와이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이웃의 교포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비행장에까지 따라 와서 젊은이의 손목을 잡고 격려하면서 꼬깃꼬깃 구긴 돈을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고 한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비행기가 떠나자 혼자 주머니를 뒤져 보니 10달러, 20달러, 50달러짜리 지전이 손 때 묻은 그대로 소복히 집혀졌다. 그 돈을 차곡차곡 챙기다가 그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여 한참 동안 울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우리의 역사와 풍속을 가르쳐 준 노교수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님, 우리 선조들의 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미국 사람 같으면 이 돈은 50달러인데 이것으로 책을 사라 혹은 이 돈은 내가 주는 것이니 꼭 옷을 사서 입어라 하면서 자기를 밝히고 조건을 내세우지만 우리의 어른들은 무조건 주시면서 자기를 밝히지도 않고 단지 정을 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따스하고 깊은 정을 느껴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화」지, '82년 1월호에서)

효(孝)는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 모든 행위의 근본이지만, 그것은 경애(敬愛)의 정과 더불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으며 부모를 근심케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생활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은(報恩)의 정이다. 전통사회에서의 모든 도덕적인 효도의 구체적인 방식을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 효도의 생활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와 의식이 그 개성을 지니게 되었다. 「심청전」을 비롯해서 무수한 소설과 설화가 우리 사회에 전해져 오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의 민족은 이 효의 사상으로 응결된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가까와지면 「형님」이라 하고 「언니」라고 한다. 친한 사람의 부모를 우리는 「아버님」「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낯선사람에게도 공손을 표할 때 「아저씨」「아주머니」라고 부른다. 노인을 부를 때는 누구에게든지 「할아버지」「할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어느 문화 권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것이며 이는 바로 우리 전통문화의 개성을 나타내어 주는 독특한 모습이다. *